

76호, 2008.6-7

사람 / 사람의 공간이 전선인 시대, 문화는 우리의 무기-인서점 심범섭 / 황윤미, 김현진

시론 / .27을 넘어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 유영재

특집-평협운동 / 내 친구 신현범 추진위원의 평화협정운동을 소개합니다 / 유정섭

특집-평협운동 / 추진위원 '완소남' 손우정 회원 / 최문희

특집-평협운동 / 개성관광을 통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운동의 중요성을 느끼며 / 박석중

기획 / 촛불, 광장, 광우병, 민주주의, 2MB OUT - 물대포와 경찰곤봉, 명박산성이 가로막아도 촛불은 전진한다 / 오미정

| 여는 그림 |

PSI는 현대판 해적

만화영화의 한 장면? 아니죠!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 겁이 많기로 소문난 미국 부시대통령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있다. PSI 역시 그의 작품 중 하나.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 배에 실린 물건이 잠재적 위협국가(북한, 이란 등)의 무기라고 (미국이) 판단하면 (PSI 가입국은) 강제로 배를 뒤질 수가 있다. 부시는 현대판 해적질인 PSI에 한국도 참여하라며 엄포를 놓고, 또 다른 겁쟁이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만 외치고 다닌다. 꿀뚜기 뛰니 망둥이 뿔다더라. 아무 때나 뛰면 다친다는 걸 2MB는 용량이 작아 모르나보다.

* PSI :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구상

글 김현진 그림 이유빈

| 사람 |

삶의 공간이 전선인 시대, 문화는 우리의 무기
문화사랑방 『인서점』 주인아저씨 심범섭 님

진행 황윤미정리·사진 김현진

1980년대 말은 6월 항쟁 이후 고조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인한 사회과학서점의 전성기였다. 전국에 140여 개의 서점이 있었으니, 큰 규모의 대학교 앞에는 하나씩 있었다고 보면 맞겠다. 사회과학 전문서점으로 1982년 건국대 앞에 문을 연 <인서점>은 마땅한 책도, 서점도 없던 시절 ‘사람중심’의 가치를 내걸고 인문사회과학의 중심 공간이 된다. 이제는 문화사랑방으로 진화한 <인서점>을 30년 가까이 지키고 계신 심범섭 아저씨(67세, 아저씨와 인서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저씨’라는 호칭을 좋아한다)를 만나서 과거를 추억해보고 현재와 미래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긴 세월 <인서점>과 함께 하신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 서점이 문을 연 82년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당시에는 대통령 별명(대머리)을 많이 붙였는데 그런 애길 지나가는 사람이 들으면 바로 신고해서 형사가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지요? 어제도 촛불집회에 가보니까 ‘이명박은 사기꾼이다 물러가라’ 그러더라구요. 예전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예요. 중범죄자들이죠. 모두 붙잡혀 갔을 거예요 (웃음). 그만큼 세월이 변한 거죠. 그럼 그냥 변했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매를 맞고 더러는 목숨을 바친 결과겠지요. 당시 피 흘리며 도망다니던 사람들 중에 인서점과 인연 맺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얼굴을 떠올리면 고맙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생할 때 나는 그들에 얹아서 따뜻한 밥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죠.

- 사회과학서점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서점은 82년에 문을 열었지만 그 전에도 서점은 운영하고 있었어요. 길동 사거리에서 했었는데 당시 서점을 드나들던 학생들이 대학가로 이사를 가자고 권유해서 여기로 오게 됐지요. 사회과학 지식이 투쟁의 무기가 돼야 하고 사람 중심의 생각들을 전면에 걸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람 ‘인(人)’ 자를 써서 『인서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됐어요. 명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거죠.

- 사회과학서점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 우리 서점이 한 일을 보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정보교환의 장소였죠.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다녔다더라’, ‘김영삼이 단식투쟁했는데 며칠 췌 라더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때로는 고대생이 남긴 쪽지를 연대생이 받아가는 쪽지와 언어의 소통공간으로서 사회과학서점이 필요했었지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복사기가 아주 귀했는데 다행히 우리 집에 복사기가 한 대 있었어요. 문건의 생산거점 역할을 했지요. 책을 판다기 보다 믿음의 공간, 사상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 사회과학서점에서 문화과학서점으로, 문화사랑방으로 변천해온 <인서점>의 역사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각각 그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88년 무렵, 더러 여러 사람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죠. ‘투쟁은 3가지가 있다. 혁명투쟁, 준혁명투쟁, 민주화투쟁이다. 혁명 투쟁은 적과 적이 전선을 그어놓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결하는 것이다. 힘이 센 쪽이 이긴다. 준혁명투쟁은 전선, 조직, 투쟁의 무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투쟁의 무기가 바로 사회과학이라는 지식이다. 투쟁의 방식도 논리적이고 설계에 의한 명확한 대안 제시다. 전사들이 나가 논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화투쟁 시기는 혁명투쟁과는 정 반대이다. 조직과 전선도 사라지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이 전선이 되고 문화가 투쟁의 무기가 된다. 90년을 넘어서면 바로 민주 전선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문화의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런 뜻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서점의 성격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 그간 인서점을 운영해 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건 90년대 이후예요. 80년대에는 영장도 없이 붙잡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경찰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책을 몇 백 권씩 압수해가면 힘들죠. 그래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었는데,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군사독재 정권의 험악한 공세가 밀려오더니 마침내 86년에 박종철이 죽고 이한열이 죽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부 다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잖아요. 그 때 내가 과연 서점을 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징역가게 해야 하는가, 서점을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형사들도 ‘당신이 책 팔아서 학생들 잡혀가는데 계속 그 일 하지 말고 다른 사업해라. 어려운 점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라’고 회유를 해요.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요. 당시에 일급식구가 조그만 방에 살아서 난 가게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는데, 새벽 1시쯤 밖에서 누가 문을 막 두드려요. 깨어나서 열어보니 도망가던 학생들이예요. 들어오게 해서 라면 끓여 막걸리 한잔 같이 마시며 얘기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진실하고 아름다워요. 역사와 정의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아... 이들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이 대목에서 선생님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 ‘인서점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사랑)이라는 모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97년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사가 바뀌게 됩니다. 문화가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중심적 가치로 바뀌죠. 그러다보니 점점 책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이데올로기 시대에는 이데올로기 서적을 파는 데 긍지를 가졌는데 문화과학의 시대가 오니까 재미가 없어.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요. 또 IMF 시대 엄청난 경제폭탄이 떨어지면서 사회전체가 충격에 빠지게 되잖아요. 즉,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아닌 뒤죽박죽 가치 혼란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2005년에 우리 서점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요. 그 때 청년건대를 중심으로 ‘인서점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조합을 꾸려 1억 3천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로 옮겨주었어요. 그 조합이 바로 ‘인사랑’이에요. 조합원은 현재 40여 명이고, 준 조합원이 100여 명 될 겁니다. ‘인사랑’은 <인서점>이 우리 역사에서 추억의 공간으로, 상징적 공간으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인사랑’이 주축이 돼서 해마다 모임을 갖는데 2006년부

터 ‘강변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강, 산, 사람을 주제로 봄에는 자연과 함께, 가을에는 사람의 삶속으로 찾아가자는 취지로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자료집도 만들고 글쓴이를 초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전, 도서전도 열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 했어요. 흠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으로 미래로 끌고 나가고자하는 데 동지로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 광진구 6.15 공준위 대표도 하시고 지역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 대표를 맡아서 여러 해 동안 활동을 했는데, 나이 먹어 하는 일 없이 감투만 쓴 거 같아 진즉에 내 놓으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러다 지난 가을에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려왔지요. 평소엔 서점이 역사가 되다보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요. 주로 그 분들 만나게 일입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 해외에 갔다가 추억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 오늘도 22년 만에 왔다는 손님이 있었어요. 반갑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 외에는 칼럼이나 서평을 씁니다. 작년까지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썼었어요. 별 일 아닌 거 같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니 이것저것 찾아봐야 할 게 많고 아는 게 없으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서평 준비하는 일에도 시간을 많이 씁니다. 20-30권과 씨름해서 두 권을 골라내야 하니까 수월치 않더라고요. 서평은 제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글나루>에 싣고 민주노동당 기관지에 하나 보내고, 인터넷 공간에도 올리고 그러합니다. 허허~

-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이기도 하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평통사에서 하는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로 같이 뛰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협정이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협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내려앉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거부하지 못하는 역사의 한 온도로 되요. 마치 두꺼운 옷을 입었다가 봄이 되면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민중들의 마음에 평화협정에 대한 열망이 내려앉아야 합니다. 생각을 다듬은 사람들이 먼저 가면서 설계를 하면 민족과 통일이라는 큰 집은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지금은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정구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시안을 만든 작업은 매우 어려운 역할을 찾아서 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코 주저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치밀하게 해 나가면서 뒤에 쳐져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여유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입니다. 민족은 그냥 그리운 거고 형제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야 됩니다. 입에 발린 말이나 위장된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통일은 됐어! 라는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갈 수 있지요. 봄이 오면 봄을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통일 역시 통일을 맞을 사람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느긋한 마음으로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독여서 키워 가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아저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흡사 부처의 그것을 닮은 듯 인자한 미소에 반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 뿌리 깊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30년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책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었으리라.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67세 청년, 그의 미소가 참 아름답다.

7.27을 넘어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정책실장 유영재

마무리 수순 접어든 6자회담 2단계

6자회담 2단계의 핵심인 북의 핵 프로그램 불능화와 신고,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와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가 매듭지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북은 핵시설 해제 단계에서 해야 할 영변의 5MW급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세계에 과시했다.

더디지만 균형 있는 진전이론 7.12 언론발표문

이런 상황에서 7월 10일부터 사흘간 6자 수석대표회담이 열려 언론발표문을 내놨다. 그 내용은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계 수립, ▲ 비확산과 경제·에너지 지원 등 공약 준수에 대한 감시체계 수립, ▲ 10월말까지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하는 시간계획 작성,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한 협의, ▲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재확인, ▲ 3단계 조치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등이다.

7.12 언론발표문-2단계 완료 계획서이자 3단계 논의의 기초 문서

7.12 발표문의 특징은 첫째, 10.3 합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표라는 데 있다. 비확산 및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등 6자회담 공약사항에 대한 감시체계 수립(2항)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합의(3항)들이 그 내용이다. 이는 10.3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불능화(80% 진행)와 경제·에너지 지원(40% 진행)의 불균등한 진행 속도와 일본의 의무 불이행을 바로잡아 10.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10.3 합의는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행되어 3단계 협상과 이행의 토대가 될 것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둘째, 3단계 협상과 이행의 기초를 놓았다는 데 있다. 3단계에서 다뤄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계 수립(1항)에 합의한 것은 3단계 이행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한 논의(4항),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재확인(5항), 3단계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 및 6자회담의 포괄적 진전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6항) 등은 3단계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

중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과 3단계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셋째, 각 사안들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내용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각국의 의무사항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대해 한국의 당국자들과 거의 모든 언론이 빠져있는 북핵 폐기 일변도의 시각이 아주 편향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7.12 발표문의 특징은 넷째, 불능화와 경제에너지의 지원 등 2단계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일정까지 명시하여 매우 구체적인 반면, 그 이후에 대한 합의는 그 수준이 낮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3단계에 대한 의견 교환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른 점, 6자 외교장관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합의하지 못한 점, 검증 및 감시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검증을 놓고 북미 양국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단계 합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관계 정상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북미 당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앞으로 2단계 합의 이행과 병행하여 포괄적 의미의 3단계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반도 비핵화, 조미·조일관계 정상화, 경수로 등 경제·에너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숨 가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한 분야나 어느 한 나라의 의무만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동시병행으로 논의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가 추진될 것이라는 뜻이다.

3단계 합의의 관건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여부

특히, 임기 말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부시행정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4일) 전인 10월 말까지 2단계 종료와 함께 북핵 폐기가 포함된 3단계 로드맵을 완성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바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6자 외교장관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이 언제 열려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6자회담 진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단계 합의와 이행의 관건은 부시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있다. 부시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부시 임기 안에 북미 쌍방의 핵심적 요구인 북핵 폐기와 확고한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총련 기관지<조선신보>는 15

일자 기사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정권이 6자회담에서 합의되는 다음 단계의 행동조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공산이 높는데 현시점에서 미국의 과분한 기대와 요구에 조선측이 응해 나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만한 담보이유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이 미국의 담보만 있다면 다음 단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실행력을 담보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적극 나서자!

우리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1차 기간인 7월 27일까지 1만 추진위원, 10만 길잡이, 1천 회원을 조직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7월 27일까지 추진위원은 2천 5백명 안팎, 길잡이는 1만 명 안팎, 회원은 150명 정도를 조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회원과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평통사 내부의 정치적·조직적 준비정도가 충분치 못하고, 평화협정 정세에 대한 자주평화통일운동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6자회담이 더디 진전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대부분 평통사 자체의 힘으로 그나마 이런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7.27 행사를 통해 1차 운동기간의 결과를 총화하고 새로운 결의를 모아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일(53년)인 8월 8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일(54년)인 11월 18일까지의 약 100일을 2차 평화협정 실현운동 기간으로 삼아 1차 운동기간에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자.

이를 위해 주요 계기별로 임원·실무자·회원, 나아가 대상 조직들에 대한 정세보고, 워크숍, 간담회, 교양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치사업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정세와 평화협정 운동의 필요성과 과제를 담은 각종 온·오프라인 상의 선전홍보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대중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언론 기고 등을 적극 조직하고 토론회나 모의 한반도 평화포럼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추진위원과 회원, 길잡이를 조직하는 데 일부 열성적인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과 추진위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특집 _ 평화협정 실현운동 |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어디까지 왔나?
- 7월 14일 현재(평통사) 추진위원 2,333명, 길잡이 8,681명 -

회원팀장 박석분

| | | 추진위원 | | 길잡이 | 신규회원 |
|--------|--------|--------|------|-----|------|
| (전체회원) | | | | | |
| 중앙 | 311명 | 178명 | - | | |
| 서울 | 480명 | 1,704명 | 18명 | | |
| 부천 | 183명 | 301명 | 13명 | | |
| 인천 | 472명 | 2,934명 | 12명 | | |
| 경기남부 | | 84명 | 27명 | 1명 | |
| 대전충남 | | 201명 | 195명 | 20명 | |
| 안동 | 70명 | 299명 | - | | |
| 전북 | 60명 | 410명 | - | | |
| 군산 | 97명 | 98명 | 10명 | | |
| 전주 | 7명 | 291명 | - | | |
| 광주전남 | | 335명 | 992명 | 43명 | |
| 대구 | 15명 | 1,028명 | - | | |
| 부산경남 | | 7명 | 196명 | - | |
| 제주 | 2명 | - | - | | |
| 강원, 기타 | | 3명 | 13명 | - | |
| 해외 | 6명 | 15명 | - | | |
| 계 | 2,333명 | 8,681명 | 117명 | | |

지난 3월부터 전개된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과 길잡이 조직상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7.27을 계기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진입합니다. 7.27까지 달성하자고 약속한 추진위원 7천 7백명, 길잡이 7만 7천명을 2단계에서는 반드시 달성합니다!

쫄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엄두에 두고 평화협정실현운동을 전개합니다.

첫째, 자신감을 갖고 조직사업에 나섭시다.

둘째,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직사업에 나섭시다.

셋째, 회원 조직화에 중점을 둡시다.

쫄평협실현운동 ‘한줄 소식’

중앙 전무배, 서울 김지영, 박종권, 신재훈, 강종호, 남미영, 나영훈, 원응호, 유호명, 장남희, 한상근, 부천 김숙희, 최경순, 인천 김일희, 김원식, 이은직, 신현범, 김은옥, 손선재, 정

동근, 대전 유병규, 군산 유승기, 박종문, 최영목, 황현정, 광주 김용성, 김현, 전경일, 나주 김병균, 안희만, 무안 최병상, 박석중, 전영남, 해남의 목사님들, 광양 배영일, 순천 이광철! 평협실현운동에 적극 나서고 계시는 추진위원들입니다. 전북 전병생 목사님과 김대송 운영위원의 맹활약으로 전북 익산에서도 추진위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원 중에는 강정구 교수님이 활약 중입니다. 이일영 운영위원께서도 추진위원 조직사업에 나서주셨고요.

인천 김일회 신부님의 평협 미사를 부러워한 대구 백창욱 목사님이 드디어 대구의 한 교회에서 평협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산 류종현 님과 김주연 님이 추진위원이 되셨고, 원주 한경호 목사님도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남해에서도 추진위원이 세워졌습니다.

평협시안 제안자이기도 한 김형태 변호사가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7.27 한마당에서 평협시안에 대한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독일에 계시는 양해동 선생님이 추진위원이 되시고 교민 열여덟 분의 길잡이 명단을 보내 주셨습니다. 양 선생님은 자통협 시절부터 국내 자주평화운동에 동참해오고 계십니다. 6.15 뉴욕위원회 대표이신 조동인 님이 방한하신 길에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시카고 매코맥신학대 이재원 교수님도 추진위원 대열에 동참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 판매노조 한기황 님 등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이 되셨고 광주 기아자동차 노동자들, 평택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노동자·농민들이 평협운동의 기수가 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 전원이 추진위원이 되셨습니다.

기독여민회 회장 김옥연 추진위원은 6월 14일 무건리 평화행진에 참여하셨습니다. 추진위원들이 평통사 실천에 참여하고 회원이 되는 일, 평협실현운동의 ‘열매’입니다.

웹조직활동에 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평협 카페(<http://cafe.daum.net/peaceagreement>)에 올려주세요. 회원들의 소박한 활동소식이야말로 평협실현운동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나서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반드시 실현됩니다!

| 특집 _ 평화협정 실현운동 | 이 달의 추진위원

이 달의 추진위원은

MBC 일일드라마 ‘코끼리’ 촬영으로 분주한 배우 권해효 씨. 평소 인권, 통일, 평화에 대해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는 배우로 더욱 유명한 그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입니다. “통일을 하려면 단계적이고 현실적 대안과 목표 마련이 중요한데 평화협정 실현운동이야말로 그 첫 출발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명쾌하면서도 생활 속을 파고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김현진

내 친구 신현범 추진위원의 평화협정운동을 소개합니다

인천평통사 유정섭

추진위원 14명을 조직한 제 친구 신현범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관한 강연을 몇 차례 들었지만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생소했던 현범이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에서는 내용적 이해가 빨라 주변에 아는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서 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던 현범이. 그러나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강연도 몇차례 들었지만 내용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들어갈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1회 추진길잡이 사랑방’에 참여했고, 모범사례로 김원식 회원과 김일회 신부님의 사례발표를 듣고, ‘아~저거 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잠깐했던 영업이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략. 그러나, 지금은 돈이 목적이 아닌 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나름대로 영업을 뛰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범이는 일단 본인이 그동안 지역 활동과 노동조합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 중에 머릿속으로 명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이 바로 14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자신이 이 운동에 대한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 길잡이용 자료집을 다시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 후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에 가서 이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자신보다 내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선배들이 흔쾌히 받아 주었고, 6·15 통일행사에서 서명운동을 해보자는 적극적인 제안도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원장 선거를 나오기까지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에게 자신이 아는 만큼 설명하고, 주변 조합원들에게 10명씩 서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운동의 방식을 터득했던 신현범 추진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의 명단도 별도로 체크했습니다. 어느날은 추진위원을 가입 받아놓은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몇시에 전화를 걸어서 ‘추진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화를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었습니다. 현범이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범이는 이 운동이 옳고,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노동조합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이 운동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속상해 하는 친구 현범이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현범아! 네가 자랑스롭다”.

추진위원 ‘완소남’

손우정 회원

서울평통사 최문희

사람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긍정적이면서도 소극적일 수 있고, 적극적이지만 방어적이거나 비관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성과 적극성 그리고 낙천적인 성격을 모두 가진 이는 드물다. 나는 오늘 홍대 어느 카페에서 이런 성격을 두루 갖춘 사람을 만났다. 그는 강정구 교수 대책위에서 일하는 손우정이다. 그와의 만남이 오늘 처음은 아니다. 처음은 평화협정 실현 추진위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만남은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우연히 추진위원을 열심히 받고 다니는 그를 확인한 때였다. 그리고 오늘,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세 번째 만남을 갖는다.

강정구 교수님과의 인연은?

대학 졸업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볼려고 했어요. 어디서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강정구 교수님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런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지요.

대책위 활동은 어떻게?

대학원 들어갈 당시 저는 수배중이었어요. 안정적이지 못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강교수님이 무척 잘 받아주시곤 했죠.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잡혀가셨어요. 그게 2001년 만경대 사건이에요. 그리고 2005년 논문을 쓸 때 2차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강교수님 대책위가 컸던 게 아니라 몇 개 단체만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걸 좀 키우자고 맘먹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강교수님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보수우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민중연대 등 여러 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 대책위 소속단체는 9개였는데 그런 노력으로 130여개 단체로까지 늘렸지요. 홈페이지도 동국대학교 학생들 클럽을 확대해서 강정구 교수 공대위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그러면서 실무작업을 제가 하게 된거죠.

듣기로 학부때 학생회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다시 하라는 제의가 있을 정도로 학생회장 역할을 잘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건 과장된 얘기에요. 당시 학교문제로 교육부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학우들의 지지로 학생회에서 벌인 투쟁이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어요. 학교 자체로 수업거부 투쟁도 벌였어요. 학교 내의 여러 정파가 있었지만 총학생회의 이런 투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촛불시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입장의 정파들이 어느 누구도 촛불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11월 선거를 다음해 3월로 하자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총학생회장을 4개월 더하라는 얘기였어요.

수업거부 투쟁이 쉽지 않았을텐데..

당시 집회시위를 계속하는 와중에 학우들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더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총투표를 했고 그 결과 수업거부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이 나

왔어요. 그날 밤에 모든 강의실의 의자를 빼서 봉쇄를 해버렸죠. 가끔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수업을 한 교수들이 있었는데 우르르 몰려가서 그러면 안된다고 설득한 적도 있었어요.

추진위원을 많이 조직하셨는데, 열성적으로 평통사 활동을 해오신 분들도 추진위원을 조직하는데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끝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뭐 북미간 정세가 어떻고, 추진위원을 하면 너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왜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인줄 알잖아요 저는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쉽게 ‘아 뭐 그거 어렵냐’하고, 이게 또 자기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좋은일 있으면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북미간의 문제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볼 것이냐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힘들게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봐요. 거부감을 보이는 분이 있으면 전 설득하지 않았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흔쾌히 동참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평화협정 운동을 하는 데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북미간의 정세가 바뀌고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가 가장 핵심인거 같거든요. 국민을 배제한 정부간의 협정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니깐 우리가 만들어보고 되든 안되든 간에 한번 제의해 보고 같이해 보자’ 하는거죠. 사실 이런 내용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단순한 선언운동이 아니라 모금도 함께 해야 돼서 어려움이 없진 않았을 텐데..

‘신문광고 내니깐 의견에 동의하면 천원내라’, ‘시간이 안되면 길잡이 하고 시간이 돼서 사람들 설득할 수 있으면 추진위원 해라’, ‘만원이면 추진위원 할 수 있다’ 사실 만원 아까워서 추진위원 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정도 의지가 있으면 돈을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이죠. 그냥 ‘편하게 사람을 만나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 슬쩍 꺼내서 일주일에 한명이든 두명이든 모아보자’고 얘기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는 것이지 운동단체의 의무감을 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범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주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진위원과 길잡이의 차이를 설명하는게 더 시간이 걸렸던것 같아요.

평통사에 대해 그전에 알고 계셨나요?

강정구 공대위 할때 많이 참여해주시고 해서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지요. 퍼포먼스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적인 것이 대중성과 결합돼서 활동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고요. 평통사를 모르면 안되지요.

평통사가 평화협정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벌어나갔으면 좋을지..

이제까지의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남한 사회에서 쉽지 않은 운동이었고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운동영역이었다고 보는데요. 평화협정운동도 촛불시위처럼 일상적이고 내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부담없이 자기 생활이 되는 운

동이있으면 합니다. 평통사가 그런 부분의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중간 중간 그는 계속 물어왔다. 커피 더 드실래요? 샌드위치 갖다드릴까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는 매너도 좋았다. 손우정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정치사회분야 상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인권단체연석회의 제안으로 시청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헌법1조와의 연관에 대해 길거리 강연을 하였다. 참세상에 들어가 '헌법1조'를 검색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게다가 매너까지 좋은 '완소남 손우정'을 만날 수 있다.

개성관광을 통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운동의 중요성을 느끼며....

광주전남평통사 박석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이 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다. 지금 평통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배종열 장로님의 권유로 평통사에 가입하게 되었다. 늘 평화와 통일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요, 동시에 기독교 선교의 핵심 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래 전부터 ‘통일맞이’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도 다만 빗진 자의 심정으로 회비만 내고 있을 뿐이었다. 평통사의 활동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회원에 가입했는데,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통사의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평통사 가입을 권유할 정도가 되었다.

얼마 전, 관내에 있는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개성을 다녀왔다. 사실 몇 년 전에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체의 경비가 제공되어 무료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지 않았다. 다만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가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육로로 북한을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 다녀오겠노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자동차로 북한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몰랐다.

고려 5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개성은 서울과 불과 7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수속을 밟고 출발하여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고 나니 잠시 후 개성에 도착하였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은 민족인데도 마음대로 왕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개성의 산천은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고향과 너무나 흡사하여 정감이 갔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북한 주민들과 걸으며 드러나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연폭포, 관음사, 선죽교, 고려박물관 등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차분하게 돌아보며 깊이 있는 해설을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았다. 나는 문화와 역사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그래서인지 하루빨리 하나가 되어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안에서 통일의 문제가 일행들의 화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고,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도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위원회에 관하여 설명했다. 일행 모두가 찬성해 주어 그 자리에서 17명의 추진위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몇 사람의 추진위원을 확보했다는 차원을 뛰어 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예컨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학교 등) 개인적으로 개성을 다녀오는 것 이상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흡족하였다.

올해에 광주전남 평통사 운영위원을 맡게 되었다. 물론 배종열 대표님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이유때문에 맡은 특혜일 것이다. 사실 무안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늘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이 너무 목회자와 장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반 대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임원도 목회자가 차지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반 대중이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운영위원도 극구 사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반 대중을 평통사 회원으로 많이 가입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을 실제적인 평화와 통일 운동의 주체세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회원 교육이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강사가 내려와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었다. 회원들은 전혀 사전에 교육의 주제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피교육자들이 주입식 교육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내용을 회원들이 직접 그 달의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 경기남부 평통사 박종양 부장(20년 전,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의 학생으로 인연을 맺음)이 금년에는 꼭 장가가기를.... 땅 끝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 기획 _ 촛불, 광장, 광우병, 민주주의, 2MB OUT |

촛불, 광장, 광우병, 민주주의, 2MB OUT

- 물대포와 경찰근봉, 명박산성이 가로 막아도 촛불은 전진한다. -

2008년 5월 2일부터 우리는 연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화두는 여럿이다. 광우병, 청소년, 촛불, 아고라, 민주주의, 광장, 물대포, 명박산성, 축제...

부글부글 끓다가 ‘뽕’하고 뭐 하나가 튀어나오는 일이 계속된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촛불에 현기증도 나지만, 가슴을 달구는 분노 또는 희망에, 들뜬 기분이 되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경험인듯 싶다. 여전히 촛불은 진화하고 있다.

글·구성 오미정

췌 2008년 5월 31일. 광장으로 나온 촛불. 밝게 웃는 참가자들에게서 희망찬 기운을 느낀다.

췌 2008년 6월 21일. 2002년 여중생때 구호는 ‘10만이 모이자’였다. 10만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있는 숫자였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에는 모였다 하면 평일에도 1~2만, 주말에는 10~20만, 집중집회때는 100만이 모였다.

췌 췌 소통거부, 명박산성. 사람들은 벽을 만나면 낙서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벽을 넘으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췌 췌 국민토성과 버스끌기.

수천년동안 ‘부역’은 민초들에게 억압의 굴레였다. 그런데 2008년 광화문에는 자발적 부역자들이 성을 쌓는다. 모래주머니를 퍼담고 나른다. 차벽을 당긴다. 자발성에 기초한 놀라운 조직력이 토성을 완성하기도, 버스를 끌어내기도 한다.

? 물대포와 우비.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말했다. ‘내가 제일 앞에서 물대포를 맞겠다’고. 서울평통사 여성회원은 ‘우리 우비도 입고 왔는데 물대포나 한방 맞고 오자’며 우비 아줌마들의 손을 잡고 선두에 다녀오기도. 촛불은 경찰에 외쳤다. ‘물값은 니가 내라’

? ‘이놈도 수입이네’ _ 2MB가 광우병을 수입하는 이유

? 미친소쉬에는 한미FTA. 한미FTA 뒤에는 한미동맹 있다.

? 한미동맹 위해 미친소까지 먹아야 해?

날짜별로 살펴본 촛불

2008년 5월 3일 토요일. 어제 청계 광장에서 1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루종일 두근두근.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인터넷을 뒤지며 오늘 문화제의 시간 장소를 확인하고 광화문역으로 나갔다. 까르르 웃는 여학생들이 복적복적. 직접 만들어 온 피켓을 자랑스레 내보이는 여학생들. “우리 피켓 완전 대박이다”

2008년 5월 3일 토요일. 뽕뽕뽕 청소년들 틈에 엉덩이를 겨우 붙이고 앉았다. 마치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 자리라든가 온 듯 싶다. 멋진 발언에는 “깽~” 소리가 터져나온다. 운동권 17년차에 이렇게 발칙한 구호들은 본 적이 없다. 경악과 황당은 잠시. 곧 그네들 정서에 물들어 “취박이”, “즐쳐드삼”을 같이 외치다.

2008년 5월 6일 화요일. 국민대책회의 긴급 결성. 1700여 단체가 가입했다. 사상 최대.

2008년 5월 17일 토요일.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대폭 늘었다. 희끗희끗 중년의 부부가 다정히 손을 잡고 오고, 말쑥한 정장차림의 직장인들이 무리져 오고,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이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촛불은 나날이 새롭다.

십대 소녀가 들었던 “엄마, 아빠, 군대간 오빠, 제가 지켜줄게요.” 피켓이 어느새 40대 남성이 “사랑하는 내 딸, 아빠가 지켜줄게”로 바뀌고 있었다.

2008년 5월 24일 “ 이런 씨박!” 가장 유명했던 피켓 중 하나

2008년 5월 31일 토요일. 서울평통사의 막내일꾼 김슬기 부장의 결혼식이었다. 신혼여행 대신 촛불문화제에 가자는 주변의 강권(?)에 신혼부부는 난처한 웃음만...

투쟁하다 날 꼬박 샌 첫 날. 가장 청와대 근처까지 간 날. 결혼식 참가복장으로 추위와 물 대포와 줄음과 싸우던 평통사 회원들...밤샘 줄 알았으면 옷이나 두둑히 입고 올걸ㅠㅠ

2008년 6월 25일 수요일. 고시강행. 국민들은 분노했다. 소통을 거부한 경찰차벽에 대형 프랑을 걸었다. “미국에 굴복말고 국민에 항복해라”

2008년 6월 10일 화요일. 100만의 촛불항쟁

쭈촛불은 언제?

▶2001년 6월 12일~16일 소파개정국민행동, 평통사 등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과 녹사평역 기름오염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였다. 낮에는 집회 밤에는 촛불문화제였다. 50여명이 연행되었고, 17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촛불문화제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와 주한미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2002년 11월 30일. 미군 장갑차에 살해당한 효순 미선을 위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날이다. 네티즌과 시민들이 ‘촛불이라도 들어 두 여중생을 추모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근심하며 교보빌딩 앞으로 갔는데, 이런 세상에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구호를 외치는 방식까지 바꾸게 됐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때문에 희생된 김선일씨를 추도하는 한달여의 촛불. 부안 군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촛불은 이제 집회 문화가 되었다.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촛불은 다시 종로통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 평택의 농사꾼들이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기 시작하였다. 935일을 대추리에서 타오른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촛불이었다.

▶2008년 5월 2일. 촛불은 미친소, 미친정부 OUT!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숨겨진 돈을 찾아라 4탄

2MB의 경제살리기는
미국 군산복합체 먹여살리기?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FMS 지위격상을 내세운 2MB씨!

FMS 지위격상에 신이 난 2MB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앞으로 사야될 미제 무기들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손꼽는 주요 고객은 뭐니뭐니해도 한국이다. FMS 지위 격상은 한마디로 예전보다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게 미국 국가차원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보잉,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사가 이번 FMS 지위격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총 수익 금액은 최소 9조 4486억원이다.

무기 구입비용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민생정책의 일부인 세금 환급부분 지원 예산의 대략 4배. 이 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1인당 최고 108만원 혹은 매월 24만원씩 4개월 동안 받을수 있겠지요?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를 괴담으로 지칭하고 국민 분노의 목소리를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몰고가는 2MB가 살리고자 강조하는 경제는 아마도 미국경제인가봅니다.

MD 참여를 위한 조기경보레이더(X-밴드 급) 도입 규탄 기자회견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2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탄도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2008~2012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제 FBX 레이더(Forward-Based X-band radar)등 4종을 구매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방사청은 8일, '(X-밴드급 레이더)구매 제안서를 미국 레이시온사에 보냈지만 구매할 의향은 없다'며 X-밴드 레이더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우리는 방사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동북아 전역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요구이며, 4월 8일 17차 SPI 직전에도 미국은 X-밴드레이더의 한국 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MD참여 방안을 검토해온 국방부 역시 두 차례 비밀전문가회의에서 X-밴드 레이더 설치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X-밴드 레이더를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은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도입할 의사도 없이 구매 제안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설령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제안서를 보냈다는 방사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장사를 해온 레이시온사가 국방부의 어설픈 가격경쟁 유도에 호락호락 말려들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난 4월 레이시온사와 한국군 사이의 PAC-3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운용성과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X-밴드 레이더의 도입을 국방부가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X-밴드 레이더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방사청과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MD 불참'을 명확히 선언하고 X-밴드레이더 구매제안서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미 본토와 일본, 최근에는 체코와 한국 등 최소한 8군데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전 세계적 차원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구매를 검토한 FBX 레이더는 최신형 고해상 X-밴드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1,800Km에 이른다. 이 레이더가 도입되면 중국 동북부 지역 대부분과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FBX 레이더는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 사격통제 지원은 물론 발사지점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적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는 MD 공격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X-밴드레이더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X-밴드레이더를 도입 할 경우 대 중국, 러시아 관계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는 MD구축을 둘러싼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대결구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국력과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에 휘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의 진전과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X-밴드 레이더 도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만적인 ‘한국형 MD’구축을 중단하라 !

X-밴드 레이더 도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FBX 레이더 외에 구매대상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는 프랑스제 M3R과 이스라엘제 슈퍼그린과 인도 탐지거리가 각각 1,000Km와 800Km로, 대북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탐지거리 500Km의 그린파인이 유일하다.

더욱이 조기경보레이더의 도입이 중국과 북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요격을 위해서는 미군 조기경보체제 및 C2BMC와의 연동 필요성은 저층 미사일 방어체제인 이른바 ‘한국형 MD’와는 비교할 바 없이 증대될 것이다.

국방부가 ‘한국형 MD’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아래서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는 미일MD를 위해, THAAD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탄도마사일 공격에 이용되는 등 한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계 및 요격체계는 중국과 북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한 중/장거리 탄도탄의 1차 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형 MD’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피해 미국 MD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와 기만적인 한국형 MD구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2008년 7월 9일)

|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 |

서울

촛불 물결에 함께 한 서울 평통사 회원들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에 서울 평통사도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늘 서울 평통사의 활동에 열심이신 유호명 선생님과 정혜열 고문님, 황순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주 뵙지 못했던 운영위원과 분회원들께서도 촛불 대열에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5월 말과 6월 초에는 연일 촛불행진에 함께한 촛불 남매(?)들도 등장했습니다. 작년, 허세욱님을 인연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을 하시고 평화영화제 때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준 김순정 회원. 올해 들어 서울 평통사의 각종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강찬희 회원과 그의 선배이신 이상우 선생님. 그리고 늘 서울 평통사의 활동에 열심이신 윤영일, 신재훈 회원. 여기에 서울 상근자들까지 합해 연일 촛불을 들었습니다. 72시간 릴레이 촛불 행진에도 이분들은 날마다 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정이 느껴진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며칠 안보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다는 말도 오셨습니다.

6월 10일에는 모든 회원들께 문자도 보내고 많은 분들께 전화도 드렸는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동창 모임을 촛불 현장에서 하기로 했다, 다른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어서 그쪽에 있어야 한다는 등 평통사 대열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서울 회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촛불을 든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회 현장에 함께하신 회원들도 많았습니다. 옛 통일벗 회원이었던 강우균, 서상미, 김현애 회원과 예쁜 딸 명지까지 데리고 참석한 이윤영 회원, 서영석 대표님은 회사 식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쿠웨이트에 출장 간 유승현 회원은 외국 방송에서 유영재 정책실장님이 발언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아마도 5월 어느 날, 청계광장에서 자유발언을 했던 유 실장님의 목소리가 외국 방송에 나간 모양입니다.

6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평통사는 수요일과 토요일 촛불행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연일 만나다가 며칠 만에 21일(토) 촛불행진에서 만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 날, 여전히 차량으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을 막은 경찰 차량 앞에서 행진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민토성도 쌓고 밧줄로 경찰 차량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명박산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추가협상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광우병 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시와 관보게재를 하겠다고 하고, 촛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답입니다. 한숨이 납니다. 오뉴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의 합성이 계속되어야 할 까닭입니다.

| 황윤미(서울평통사 사무국장)

부천

*6/11 평화협정 대장정 추진위원 1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15일, 부천지역에서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부천시민 제2회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6/29 무건리 평화기행 “휴전 55년, 이제 전쟁을 끝내자!!”

작년에 소극적으로 결합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 참여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마라톤대회가 치뤄질 ‘차 없는 거리’에서 ‘미친소 한미동맹 반대’를 상징하는 물풍선 던지기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서 부시의 카트 운전을 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커다란 합판에 그리고 페인트로 칠도 하고 그렇게 며칠에 걸쳐 준비를 하였지요. 일찌감치 마라톤 대회가 열릴 장소로 움직여 부스설치도 하고, 길잡이와 추진위원 모임을 위한 서명대도 설치하였답니다.

날씨가 적당히 더워서 아이들이며, 어른들이 물풍선 던지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였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물풍선 던지기는 하지 않아도 그림이 멋있다고 사진기에 담아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바로 그 장소에서 쇠고기 반대 촛불을 밝혔습니다. 부천평통사 노래분회원들은 노래 공연으로 촛불에 참여하였구요.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하는 구호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주최 단위의 회원들 말고도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주정숙(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인천

우리 모두 오작교를 놓는 까마귀가 되어야 합니다.

6월 6일 인천 부평3동 성당에 160여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촛불의식과 함께 ‘반갑다 평화! 잘가라 미군!’을 주제로 한 문규현 신부님 강연을 시작으로 인천 평통사 창립 5주년 후원행사가 열렸습니다.

문규현 신부님은 온갖 고초 속에 89년 방북을 감동적으로 성공시켰던 당시의 영상을 보여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통일로 한걸음 성큼 다가설 기회가 왔다. 이를 위해 까마귀가 오작교를 놓듯이 우리 모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의 길잡이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감동을 받은 많은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평화협정 추진길잡이와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인천시민연대 홍재웅 상임대표님은 축하의 말씀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평통사가 정면돌파 하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며 격려해주셨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운동에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한 이 날 행사는 가수 류금신 씨의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인천평통사 5주년 후원행사에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00여 명 분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신 이은순 회원과 자원봉사를 해준 인천공대 학생회 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촛불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쇠고기 ‘추가협상’이 발표되었지만 6월 21일 서울 시청에는 또다시 6만의 촛불이 켜짐으로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매일 밤이면 시청을 찾는 정백영 회원,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겨놓고 가방에 비옷과 이불까지 챙겨 그야말로 집을 나온 김의숙 회원, 취업준비로 한 번도 참가 못하다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아 나왔다는 김주숙 회원,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에 마음이 들떠 내내 흥분해 있는 초등 2년 아들과 함께 참석한 한연숙 회원, 파주에 살면서 화물연대파업·서울촛불문화제·평화협정 실현운동에 그야말로 불철주야 매진하다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주사 한 대 맞고 또다시 촛불을 들기 위해 나타난 김원식 회원, 일명 고된 건설노가다를 하느라 매일 새벽일을 나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서울로 출근(?)하는 김병철 회원 등 이들이 매일 밤 켜지는 서울 시청 앞 광장 촛불의 주인공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촛불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실래요?

| 유한경(인천평통사)

경기남부

경기남부평통사 오산분회 모임가져

6월 19일 저녁 경기도 오산 다솜교회에서 경기남부 평통사 오산분회 첫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솜교회는 경기남부 평통사 공동대표이신 장창원 목사님과 뜻있는 분들이 함께 오산 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장 목사님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아기자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모임인 만큼 앞으로 모임을 이끌어갈 오산분회 고문과 대표, 총무를 선출하였습니다.

오산분회대표는 민영완 경기남부평통사 운영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총무는 장태곤 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이 선출되었고 고문에는 역시 민주연합노동조합 오산지부 대외협력부장이신 최돈표 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민주연합노동조합 오산지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행하는 공무원 구조조정정책에 맞서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조직된 오산지부는 공무원 대우도 하지 않으면서 새벽부터 거리청소와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을 공무원이라며 정리해고하려는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산지역모임은 매달 모임 예정이며 회원 교육과 평화협정 추진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8 통일쌀 나누기 운동 진행하여

5월 31일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인근에서는 평택농민회 신종원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민주노동당 시의원, 평택참여연대,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경기남부 평통사, 민주노동당평택시당등이 참석해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통일쌀보내기 운동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농민회는 지난해 3,300㎡의 농경지에서 통일쌀을 수확해 14가마(240만원 상당)를 북한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올해에는 3,300㎡의 농경지를 추가로 확보 총 6,600㎡의 농경지에서 통일쌀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평택농민회 이상규 정책실장은 “평택농민회는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경작지를 배로 늘려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올해에는 40가마(720만원 상당)를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농민회가 진행하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은 자발적 모금방식과 쌀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쌀을 구입하는 방식은 20kg의 쌀을 55,000원에 구입, 쌀값 5만원을 제외하

고 5천원의 비용을 북한에 통일쌀로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평택농민회를 비롯해 경기지역에서는 8개 시·군 농민회가 통일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45,000㎡의 경작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평통사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현호현(경기남부평통사 사무국장)

대전충남

달려라 통일의 그날까지..

지난 5월 24일 대전에서는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통일 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땀을 흘리며 달리고 때론 걷기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통일 김밥말기와 통일의 꽃달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여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통일의 열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역사바로세우기

지난 6월 6일 대전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전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반민족행위자 김창룡의 묘를 이전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창룡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반민족행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접두사가 붙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군 체포와 고문에 앞장선 공로로 헌병대 오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에는 백범 김구 암살 등 수많은 정치공작을 자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부역자를 가리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은 김창룡의 묘를 이장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평화산행

녹색의 푸르름이 또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 3월 직장산 산행 이후 오랜만에 평화산행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의 활동이 바빠 이번에는 답사조차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을로 난 사이길로 접어들자 직장산 꽃말이 나타났습니다.

산행의 시작은 평탄하고 완만한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상 밖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멋진 풍경에 참가자들의 탄성이 이어졌고, 산행 정말 잘 왔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능선을 배경으로 각자의 멋진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을 하고, 맑은 공기와 나무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이들과의 이야기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짧은 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이어진 뒤풀이. 서영완 대표의 절친한 친구이신 전은경 회원님의 강력 추천으로 메뉴는 검은콩 수제비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평화의 마음을 나누는 산행을 해서 기쁘고, 맛난 검은콩 수제비와 두부김치, 샐러드 등 멋진 음식에 입이 더욱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도정(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전북

고 이병렬 열사 노제 및 추모 촛불의 밤

고 이병렬 열사의 영결식이 14일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어졌습니다. 장례행렬은 오후 4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고인의 뜻을 기리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노제엔 평통사 문규현 상임대표님과 전병생, 이세우 공동대표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약 한 시간여 진행된 노제는 오거리 광장까지 추모행진을 끝으로 마치고 광주로 이동하였습니다. 고 이병렬 열사는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익산 시민공원에는 열사의 뜻을 기리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열사는 살아생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의 생존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가열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날 모인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살아생전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기필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정책을 막아내는 촛불을 더욱 힘차게 밝힐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전북 평통사 교육

전북 평통사에서는 전북지역에 갇혀 있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의지를 이끌어 내고자 지난 22일 저녁 8시, 익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과 운영위원등 1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의 정세에서 왜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추진위원과 길잡이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익산촛불문화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된 오늘, 익산지역 시민들은 큰 분노와 의지를 가지고 촛불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문화제엔 130여명의 익산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가족중심의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문화제 참가자들은 더 많은 익산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의를 높였습니다.

| 최성훈(전북평통사 사무국장)

군산

군산 평통사 등, 한미연합공군 「맥스 썬더(Max Thunder)」 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열다!
지난 6월 16일~20일까지 군산미군기지 일대에서 B-52, A-10,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한미공군 전투기 80-100여개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의 문제점은 첫째, 훈련에 동원된 위와 같은 전력들이 미국의 대북 핵전쟁계획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 따른 원거리 초정밀 타격용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훈련은 오는 8월 미국 벨리스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동맹국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가상전쟁훈련인 레드 플래그(Red Flag)의 사전 훈련으로 한국의 F-15K가 참가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물자수송 및 병력 수송 등 지원 작전을 수행해 오던 한국군이 미군의 전투작전에도 직접 참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패권전쟁에 더욱 깊숙이 편입됨으로써 북, 중, 러 등 아태지역 다른 나라와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이 시작된 16일에는 주민들이 잠을 자야할 밤 9시에 비행기 소음이 108db(통상 95db 이상이면 두통유발, 정상대화 불가)까지 올라가는 등 주민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 전북, 광주전남 평통사,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 등 지역단체들이 17일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열고 훈련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조규춘 목사님, 문성주 전 군산농민회장 등 운영위원 보강하다!

지난 6월 19일 운영위에서 현재 6명의 운영위원에 더해 열린교회 조규춘 목사님과 문성주 전 군산농민회장님을 운영위원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연태 회원(현 대학노조 통일위원장, 전 군산대노조 지부장)을 운영위원으로 인준할 예정이어서 군산평통사는 앞으로 9명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조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보영 회원 결혼하다!

지난 6월 6일 대우자동차에 다니는 임보영 회원이 신부 김금희 양과 부천 송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늦장가를 가서 그런지 신랑은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통사 모든 회원은 두 분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군산 나운동에 신혼집을 차렸다는데 아직 집들이 소식이 없네요?!

| 김판태(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광주전남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평화협정!

전국 방방곡곡에서 “광우병, 미국 쇠고기 반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농성과 촛불행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평화카페, 5월 17~18일 5·18 행사로 정신없는 5월을 보낸 회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행사에도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분회모임과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 모집사업에도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균 목사님, 이철우 목사님은 광주에서 진행되는 촛불행사에 매일같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나주 촛불행사와 '혁신도시 건설 촉구'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교인들을 상대로 한 추진위원과 길잡이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광주지역에서는 공동대표이신 이철우 목사님, 장현권 목사님, 장관철 목사님, 김희용 목사님, 김용성 목사님 등이 중심이 돼서 시국 기도회 등을 조직하고 촛불행사와 추진위원 조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주에서는 박종주 선생님과 안희만 대표님을 중심으로 6월 10일 혁신도시 건설 촉구 집회, 매주 토요일 촛불행사와 추진위원 조직을 결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는 최병상 운영위원, 박석중 목사님, 송봉섭 회원과 김미경 회원이 매주 금요일 촛불행사와 광주 군공항의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투쟁, 추진위원 조직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도 매주 금요일 촛불행사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 조직을 전개하여, 20여명분이 추진위원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이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2주간의 군청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 촛불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지역 회원이신 한강희 목사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6월 20일 서울로 올라와 평통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처장님과 중앙사무처 상근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된 촛불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무대에 올라 자유발언과 노래까지 부르는 열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는 현재 초반에 결의했던 추진위원을 회원으로까지 조직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지만, 각종 실천과 사업에 오늘도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자! 아자!!

| 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안동

5월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5월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9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대구 평통사 창립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백창욱 목사님과 또 중앙의 박석분 회원팀장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해 주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편 백 목사님께서 주한미군 몰아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에 관한 대구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요청했고 또 중앙의 박석분 회원팀장은 전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상황을 종합 설명하며 안동에서도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안동 평통사에서는 이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또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안동 평통사 부설, 가칭 "한반도평화협정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박무식 운영위원을 추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이 날 운영위 결정사항으로는 5.18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 광주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식코'영화제 상영, 5월 통일모내기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주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5.18 시민군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

우리 근현대사 최고의 비극이자 결코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사건을 꼽자면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일 것입니다. 당시 시민군들의 정신과 의기를 오늘날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5.18 시민군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이자 생생한 증언자이기도 한 안동 거주 광주 민주인사 차명숙(47)씨에 의해 제안되어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 날 일반시민들에게 나눠준 주먹밥만 무려 400여 개가 넘어 재료가 일찍 동이 나는 예상외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통사 운영위원인 최난희, 김영애 님 등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통일모내기 행사 열려

5월 18일 일요일 오후, 안동시 FTA대책위와 농민회가 주최가 되어 열린 통일모내기 행사에 우리 안동평통사 회원의 대대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안동시 인근 송현동의 한 농민회 원 논에서 치러진 이 날 행사는 참가자 1인당 1만원씩 기금으로 내면 그 기금 중 반액은 북측으로 기부되며 나머지 반액은 가을 추수 때 돌려받는 내용의 행사입니다. 당초 주최 측은 행사 홍보의 미미와 기일의 촉박함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막상 당일 참여인원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어 약 50 여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강정구 교수 평화협정 촉구 강연

5월 13일 저녁, 안동 가톨릭 상지대 두봉관에서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장인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강 교수님은 6자 회담과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왜 중요하고 또 왜 절실한지 내내 강조하며 우리 평통사 회원을 중심으로 이 평협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동 평통사를 위시해 안동의 여러 뜻 있는 단체와 시민 등 약 150명이 함께 해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 한철희(안동평통사)

대구 준비모임

대중캠페인으로 평화협정을 알리다

대구 평통사는 길잡이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주로 대중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이 평화협정실현운동을 접합니다. 평화협정의 배경과 정세, 운동내용 등을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대중화됩니다. 둘째는 캠페인의 주 목적인 길잡이 모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추진위원이 보다 많이 조직돼서 음으로 양으로 길잡이를 조직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조직활동이 일천한 대구에서 추진위원을 조직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으므로 이 틀을 뛰어넘어 길잡이 모집을 하려면 캠페인이 참 유용한 수단입니다. 셋째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 사이에 평통사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됩니다.

대구 평통사는 5, 6월에 세 번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18광주항쟁 기념예배에서입니다. 주로 남쪽지역에서 함께 모인 여러 교우들로부터 평화협정을 설명하고 길잡이 모집을 하였습니다. 길잡이 모집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무리 평화협정이 의식공유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는 일일지라도 대면해서 적극 권하고 서명을 받는 주체적인 활동을 꼭 수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알아서 제 발로 걸어와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알리고 권하고 판을 벌려야 상대방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더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업을 위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일 제 2회 대구통일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평협 홍보와 길잡이 모집을 하였습니다. 대회주제가 통일이어서 우리가 하는 평협운동과 잘 맞은 까닭에 의식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평협운동을 확실히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안동 평통사 김창환 회장님과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했고, 유영재 정책실장님도 서울에서부터 새벽바람을 가르고 와서 막강한 원군이 되었습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 캠페인도 주최측의 기운이 왕성해야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마라톤 캠페인은 평통사의 자발적 열성회원들로 무장된지라 대중들에게 우리의 의지가 명확히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캠페인은 대구지역 촛불문화제에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쇠고기 사태가 평화협정과 꼭 맞아 떨어지는 현안이 아니어서 나서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마침 6.15기념식과 겹하는 날이 있어서 마음껏 평협캠페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 활동가들과 쌓아놓은 안면이 있어서 캠페인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캠페인은 저의 가족이 총출동하였고, 언제나 캠페인을 할 때마다 동참하는 평화교회 윤일규 전도사, 누가교회 김혜정 전도사, 아들친구, 성공회 신부님까지 합류해서 아주 재미있고, 보람 있게 평협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할 때마다 길잡이 리플렛을 실사출력한 홍보전시물이 늘 한몫을 합니다. 저거 만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성서 말씀대로 귀 있는 자들은 듣도록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열심히 말하면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의 열성과 하늘의 기운이 합작해서 평협운동이 전국을 강타하도록 합시다.

| 백창욱(목사, 대구평통사 준비모임 대표)

| 사진이야기 |

불청객 - 게이즈 미 국방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

6월 초와 6월 말, 미국의 게이즈 국방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우리 국민은 미친소도 필요 없고 미군도 필요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내다버릴 쓰레기 고기와 쓰레기탄약(WRSA)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 뒷바라지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평통사는 적은 숫자였지만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조공말고 외교해라!

국방부는 미군이 폐기하려는 쓰레기탄약(WRSA)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산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의 첨단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거죠. 대미무기체계 종속을 불러올 일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북한붕쇄 프로그램인 PSI에 참여하려 합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주인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가우뚱해집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미조공부'라도 생긴걸까요?

효순미선 + 무건리

6년전 6월 13일, 무건리 훈련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효촌리 도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미군 장갑차는 꽃다운 효순이 미선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두 소녀를 위해 들었던 촛불은 미친소를 막는 백만의 촛불로 되살아났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미국에 맞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효촌리에서 무건리로 걷기대회도 하였습니다.

우주의 무기화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전지구 모임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소속
브루스 개그논(Bruce K. Gagnon)

글 최성희

브루스 케네쓰 개그논(55)은 우주의 무기화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전지구 모임(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 이후 GN 으로 표기) 창설자의 한 사람이자 현재 사무국장이다. 그는 "지금 모이자: 쇠퇴해가는 제국으로부터 조직화 이야기" 「Come Together Right Now: Organizing Stories from a Fading Empire」 (2008년 개정)의 저자이고 다큐멘터리, "위선의 병기고" (Arsenal of Hypocrisy, 2003) 제작을 주도했다.

1992년 창설된 GN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 우주 전쟁에 관한 이슈에 특별히 헌신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조직이다. GN은 19개 이상 국가와 150개 이상 동맹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목사님께서 지난 호에 올해 GN 오마하 회의를 포함한 미국 여행기를 쓰신 바 있다. 그 회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미 전략 사령부의 위협에 관한 것이었다.

6월 8일, 나는 메인 주 베쓰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 그를 인터뷰 했다. 6월 6일, 브루스 개그논과 나는 2주간의 연대 단식을 마쳤다. 체코의 얀 타마스와 얀 베드나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하나인 레이다를 체코에 설치하려는 것에 반대, 3주간의 단식을 벌인 바 있고 우리의 단식은 그것에 대한 지지였다. 그의 파트너이자 외부 사무국장인 메리 베쓰 설리반은 브루스 개그논의 뒤를 이어 무기한 단식을 6월 7일 시작했다. [체코의 국제 청원 서명과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위해 www.nonviolence.cz 로 가길. 한편 2008년, 6월 22일 우주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일일 단식이 있었다.]

인터뷰는 편안한 상태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되었다. 아래는 그것의 요약 기록이다.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활동가가 되셨나요?

저는 맘씨좋은 야구 팬이에요.(웃음) 원래 보수적이었으나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활동가 말고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전쟁 때 미 공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진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저는 18살이었죠. 병영에서 다니엘 엘스버그의 「국방부 서류 (Pentagon Papers)」를 읽었어요. 그것은 미 정부가 어떻게 베트남 전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밀 역사였어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대한 구실을 만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미 국민을 황폐한 전쟁에 몰아넣었는지 알게 되었죠.

어떤 계기로 우주 전쟁 무기 반대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요?

1982년 6월 12일, 나는 C-SPAN(미 정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시위를 보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우익 회담으로 바뀌어졌는데, 연사가 레이건 정부 우주 전쟁 정책(SDI - Star Wars) 최고 책임을 맡고 있던 대니얼 그라함 장군이었죠. 그의 연설 후에 청중의 한 사람이 물었어요 “장군, 사람들이 말하길 오늘 뉴욕에서 백만명이 시위하고 있다는데 걱정되지 않나요?” 장군이 말하길, “아뇨,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핵무기에 반대해서 시위하고 있고 우리는 우주 이슈로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죠.” 그 순간 나는 무기 경쟁이 우주로 옮겨 가고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깨달았죠. 다음 해, 플로리다 정의평화연합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주 이슈에 관한 운동을 시작했죠. 1983년, 나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크루즈, 퍼싱 미사일 방어망을 유럽 내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플로리다 주 차원의 시위를 조직했죠.

GN의 주요 행사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매년 두개의 큰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GN 초창기부터 세계 곳곳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연례 회의로, 우주 무기 이슈에 관한 지식들을 넓히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다른 하나는 매년 10월에 열리는 ‘평화 우주를 위한 주간 (Keep Space for Peace Week)’이에요. 그것은 우주 무기 이슈들에 관해 지역별로 행동할 기회를 주죠. (크고 작은 집회 및시위, 공공 포럼, 우주 무기 이슈에 관한 영화 상영, 그리고 공동체 대화 등 다양한 내용과 규모로 표출된다.) 매년 12개 국가에서 75개의 지역별 행사가 있죠.

GN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주 무기 이슈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선의 병기고’에 대해 말해 봅시다. 우리가 2003년 만든 그 필름은 3만명 이상이 웹사이트에서 볼 정도로 거대한 시각적 도움이 되었죠. 그것은 케이블 TV, 학교 모임 등 많은 공공 장소에서 보여졌어요. 이라크 전에서의 작전 ‘충격과 공포’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그 영화는 아직도 현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기 이슈에 관해 특별히 헌신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GN의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역적으로 새로운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발굴,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밤에 리카르도 페레스라고 젊은 브라질인으로부터 이 메일이 있었죠. 저는 지난 5월 초, 사옹 파울로에서 열린 전 세계 녹색당 회담에 메인 주 녹색당 대표로 참가해서 우주 무기에 관한 연설을 했었죠. 그 연설을 듣고, 그는 브라질의 환경 이슈와 우주 무기 이슈를 연결하는 제안을 했었죠.

우리의 과제는 또한 어떻게 우리의 지역적 이슈들을 자신과 관계있는 우주 평화 이슈로 연결시키는가 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 영국 맨위스 힐에서는 린디스 퍼시가 미국가 안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 스파이 기지에 대항하는 싸움을, 미국 네브래스카 링컨에서는 팀 리너가 미 전략 사령부에 대항하는 운동을, 체코에서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하나인 미국 레이더에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그들의 관심은 미국과 유럽의 우주 무기에 쓰이는 거대한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아프리카 개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또다른 관심은 아프리카의 석유를 훔치기 위한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AfricaCom)에 관한 것입니다. 전 해군 대학 교수이자 럽스펠드의 전략가이기도 한 토마스 바넷은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 싸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우주 기술에 의해 지휘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오마하 회의에 참가한 평통사의 인상은 어땠나요?

무엇보다 평통사 공동대표인 고영대 님의 연설은 정말 훌륭했고 매우 구체적이었고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잘 준비되고 분석된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청중이 그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년 한국 주최 GN 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통사 대표들은 적절한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통사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아는 진지하고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점들을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양아버지가 한국 전쟁 기간 잠깐 한국에 있었죠. 공군 소속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양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관한 앨범들을 가져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2002년도에 GN 회담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있었죠. “한국 진실 규명 위원회 (The Korea Truth Commission)”가 토요일날 아침에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고 그때 노근리의 조직적인 양민학살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우리는 전부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플로리다 주 게인즈빌과 메인 주 브런스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평화 재향 군인회 (Veterans for Peace)를 비롯, 모두가 망연자실해졌죠.

한국진실규명위원회의 한 사람이었던 정유미씨는 세계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2년째 위암과 싸우고 있다.

메인 주 베쓰에 사시면서 어떤 지역적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메인 주에 있는 베쓰는 베쓰 철강 공장 (Bath Iron Works BIW)으로 유명한데 연간 2개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듭니다. 메인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것의 군사 공격 임무에 대해 모릅니다.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지스 구축함의 군사적 임무와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산업 전환에 대해 대중을 교육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BIW의 한 노동자가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노동자들도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디오 쇼를 하고 있는데 그의 쇼에서 산업 전환과 평화 이슈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자주 저를 초청합니다. 한 BIW 노조 멤버를 아는데, 그의 직업은 배 옆편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그 배의 음향 테스트가 물고기들을 죽인다는 사실은 그를 울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고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노조 노동자들이 이지스 구축함이 아닌 평화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도록 토론을 고무시키는데 있습니다. (GN은 2004년 회담을 메인 주에서 가졌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 밖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저는 187여 가지 김치를 전부 맛보는 첫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웃음)

회비와 후원금(5월)

중앙

[대표/임원] 강정구 고영대 김홍수 문규현 문홍주 박용일 배종렬 변연식 이관복 이일영 장경옥 정순영 홍근수 홍창의

[후원회비] 박춘원 서경숙 우경태 유영섭 이광수 이은혜 임동명 최문숙 최재영 하정일 한희숙 홍민애 유영섭 이은혜 한희숙

[특별회비] 서울평통사여성분회 김종일 문규현 전영남

[후원금] 새길기독사회문화원 푸른마을교회 향린교회 향린교회청년남신도회 윤영수 장남주

서울 평통사

[회원회비] 강유겸 고이지선 공동길 권병길 권혁문(2개월) 김정자 김동훈 김명일 김상진 김석제(2개월) 김순정 김슬기 김연옥 김영진 김은미(2개월) 김은아 김종일 김종일 김종현 김중한 김지수 김채석 김치섭 김현미 김현성 김현애 김현진 김형예 김화수 김후중 나영훈 남미영 문석우(2개월) 문성현 박규상 박석분 박선자 박정자 박종권 박종기 박준희 박희정 백차현 서광석 서동빈 선소진 선순단 손윤희 송민영 신재훈 신재희 오갑성 오미정 우미정 위선남(2개월) 유영재 유현규 이경목 이경옥 이민형 이병일 이성열 이수정 이형수 이수지 이승규 이승민 이종남 이종민 이준호 이현규 이현숙 이해영 이해진,박승렬 이호민 인민지, 김종완(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희호 장남희 장속도 장윤지 장희수 전영규 정귀남 정기열 정미교 정상현 정선영 정신화 정준영 조영래(2개월) 조영희 조창현 주재영 지안나 최낙현 최문희 최소영 추정수 한문덕 한호석 허정섭 허학범 황규금 황도연 황윤미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고경심 곽상진 권영무 김각영 김균열 김기환 김문영 김민이 김상중 김석순

김선희 김성원 김세옥 김승현 김영진 김용순 김유중 김점희 김정자 김진미 김충례 김혜숙 김화순 김희국 김희영 나현대 나혜영 남인순 노은아 박경혜 박사라 박승환 박은봉 박후임 서보혁 서정호 서황석 손은정 송금심 송혜진 순상환 신만호 안지성 양계탁 양창호 여혜숙 오행진(2개월) 오혜경 유영철 윤영수 이강택 이경희 이관용(2개월) 이광숙 이남현 이덕희 이명학 이병용(2개월) 이상근 이소영 이순혁 이승무 이연자(2개월) 이영옥 이 윤 이은영 이인희 이재정 이정용 이정태 이창호 이춘미 이해삼 이해경 이해순 임영인 정순영 정은선 정철호 조명환 천상배 최용기 하보애 한기황 한상근 한상옥 한선영 한재현 한중현 홍길표 홍만표 홍승완 홍혜자 황호정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용애 강용환(4,5) 강혜선 곽노충 구현모 권혜숙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1, 김숙희2 김인영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종대 김현숙 노은하 노철성 문은정 박병준 박병훈 박석진 박숙경 박옥선 박용섭 박은영

방정미 배영미 백창석(4) 서경숙 서명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석환 손장현 손종욱 신장호 신정길 양난영 유길준 유승우 유정엽 윤영근 윤재명 이경숙 이리나 이상수 이상원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진혁 이해련 이현주 임숙영 임채경 장동환 장미숙 장해영 전윤미 정상희 정승현 정용진 정창욱 정현수 조미옥 조지선 주명숙 주정숙 지은희 지태봉 차복례 최경순 최경호(4,5) 최은주 최지선 최희준 한태희 황영신 황영희 허호인 현낙철 현지환 홍갑표 홍혜숙 홍진표 홍제숙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곽준경 구완모 권영준 권태형 김강연 김경태 김경희 김대영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영억 김오섭 김의숙 김인식 김일희 김정대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호영 김희겸 두현진 류성훈 문한나 박순길 박승문 박유순 박인호 박종익 박창훈 백요순 서경석 서경혜 서동완 서영선 서화조 송영주 신동훈 신창균 신창선 신필녀 심상봉 심자섭 안용국 여영석 오수정 유정섭 유한경 유한수 윤인중 윤화심 이경준 이무용 이용수 이은순 이은직 이재윤 이종훈 이준길 이진권 이천직 이춘식 이현주 임재훈 장근수 장금배 정송호 정유성 정재훈 정현숙 정형서 조남순 조성혜 조승철 조승현 조인휘 진재환 차광호 최장수 최종락 최현호 한미현 한연숙 홍종

[후원회비] 고대권 김금옥 김대인 김도식 김동운 김명종 김상기 김지영 김지은 김창한 김태정 김희숙 문병호 박기현 박상태 박상호 박영민 백은정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송한석 신정순 심이섭 안용원 오석근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미자 유재원 유한성 유한진 이미경 이미영 이승미 이옥희 이은희 이전범 이형진 이화전 임경희 임병구 임용렬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백영 정연실 정유선 정윤엽 조태영 천재용 최명희 최민우 최영미 최 웅 최원식 하태준 허문예 홍학기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욱 권혁범 김기덕 김민수 김승만 김택균 민영환 문종식 박종양 변혜숙 신종원 이근량 이수용 이승윤 이양진 오영미 이우곤 이유빈 이은우 이재영 이종필 이진희 이현주 장창원 정만진 한은숙 현호현 홍성조 황재순 (주)도프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선호 고양우 권선필 권선헌 권 인 김기수 김미경 김미옥 김성자 김재봉 김제선 김종필 김종훈 김지수 김홍업 김홍수 류재중 문양로 문영국 박경란 박범창 박도신 박영칠 서영완 소종영 손용갑 송관욱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성정 신현정 엄기문 오명세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윤상렬 윤영덕 이정아 이기홍 이미옥 이번영 이요한 이용구 이종명 이진규 이창복 이춘자 이화자

임수규 임재현 장도정 장인백 전기룡 전은경 정상건 정성삼 정순희 정태순 정하진 정한섭
조부활 조성균 조성미 조주형 최만정 최정임 추교화 하일청 한동화 한재훈 함필주 허민정
홍대영

전북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이명자 안경숙 양지연 조광범 권선희 이수정 황인철 이현수
오인빈 이규태 정태웅 정운승 김동학 김형근 정은주 이용숙 박영천 이병기 장수나 이진규
박은경 이병주 오기주 정창완 장완수 김명근 임재완 김순희 허정길 전호일 전호정 김아영
라귀인 최희숙 이금림 양정순 유은선 양종진 김미경 정웅용 신용우 최성웅 최민옥 신현옥
김종혁 최수경 조성숙 조광수 이경진 이장우 오창규 유희탁 황영하 서현선 박용호 채운석
박충례 이정현 방용승 허자영 정태웅 현주억 전용균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경수 김도걸 김미주 김 삼 김성훈 김연태 김인수 김준근
김진호 김판태 김효성 남현옥 노승민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박미라 박종대 박종문 서동완
선진숙 송상구 신수철 엄미숙 여성구 우훈식 유승기 유재임 유하영 이상호 이성원 이성원
임보영 임춘희 전재현 전해숙 정건희 정병휴 조성옥 조판철 최대준 최영목 최웅진 최재석
홍경갑 황남인 황두만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고흥문 김경태 김미경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수미 김순종 김
승환 김영식 김영식 김영일 김용성 김은곤 김은숙 김인숙 김정태 김 현 김희용 노준복 리
억 마대중 모영현 문유신 박상재 박석면 박석환 박선재 박승규 박승옥 박영배 박종주 박종
찬 배영일 백은경 백지은 서창호 손용석 송경희 안성례 안희만 양덕준 엄영애 오근선 오승
주 유진이 윤종순 이광철 이대준 이돈기 이보영 이영선 이윤옥 이인수 이재균 이재원 이재
창 이철우 이태석 이현수 임현삼 장관철 전경일 전영남 정길주 정동석 정유철 정일태 정종
득 정중석 정찬록 정희억 주근호 채일손 최종률 최창현 한강희 홍용식 무등교회 큰사랑교회
무진교회 민들레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정석 박무식 김창환 김현택 권정애 이규중 박용제 김지섭
장호철 김금희 유춘우 정철환 배용한 우성섭 강석주 김현숙 피재현 김영애 김판갑 한철희
김정희 김주철 박종규 정복순 윤지홍 최윤희 조선아 권영숙 최난희 권주원 강민석 배오직

김옥희 박화무 김인숙 이형창 이천우 김상범

대구평통사 준비위원회(CMS회원만)

고경수 김남경 박문수 박성민 박순종 이영훈 전창훈 정승영 허정호

부산경남 지역회원

김건우 류종현

경기북부 지역회원

김일권 주병준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종수 김태준 배종렬 신정길 임승계 조현정 홍근수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창범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성경숙 성정혜 이범준 이
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관련 문의는 지역 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세요.

* 이상은 5월 회비와 후원금 납부명단입니다. 6, 7월 납부 명단은 8월에 발행되는 77호 회
지에 실립니다.

편집후기

“홍보가 기가 막혀”

‘꿇구녁’을 틀어막고 컨테이너 산성에 들어 앉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국민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이라고. 5월 22일 첫 번째 대국민담화 직전의 일이다.

추가협상이후 장관 고시를 강행하며 한나라당은 말했다. “대국민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승수 총리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라고 했다. 7월 3일이다. 그리고, 7월 7일 청와대는 정부와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을 단행한다.

한편,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는 7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부 기능을 전투-홍보모드로 전환해야”라는 제목으로 “광우병 사태도 대국민 홍보를 태만하게 해 다수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 쇠고기를 위험물질로 오해하도록 방치”했다고 정부를 꾸짖었다. 때문에 “정부 기구 전체가 일종의 홍보기관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의 80% 이상은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애시당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본 전제’가 아예 틀렸다는 것이다. 객관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홍보다. 아무리 화려한 홍보기법으로 포장해도 잘못된 정책은 금방 들통난다. 국민들이 더 분노할 뿐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후과를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홍보담당자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광우병 촛불로 들끓었던 현장을 기획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촛불이 다시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이고, 5년 내내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촛불이 준 소중한 경험들은 분명 한국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될 것입니다. 여중생 촛불이, 평택 촛불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자회담이 열렸습니다. 뭐만 했다 하면 사고치는 대통령 때문에 정신은 없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국제 정세는 차곡차곡 진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6호가 6·7월 합본호로 나오면서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매달 오던 <평화누리통일누리>가 혹시 기다려지지는 않으시던가요? 호호~ (77호는 8월 중순에 찾아가 뵙니다. 쿨럭--;;)